서울 청계광장 설계 연구[†]

신현돈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A Design Study on Seoul CheongGye Plaza

Shin, Hyun-Don

Seo-Ahn RnD Landscape Design Group

ABSTRACT

The proximities of Cheonggye creek was a major space for the gathering of large populations from the past times and it is also a place containing the joy, anger, sorrow, pleasure and lives of the citizens. The Cheonggye creek which flowed downtown of Seoul throughout many historical events had disappeared into history completely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due to the contamination with life sewages and overflow. However, the city authority of Seoul decided to restore it to its shape before covering the creek by means of dismantling the old elevated ways in Cheonggye creek in line with the Large Scale City Movement Project to revive the grey cit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ty landscape in 2002.

The cultural space was created by activating the old town sphere in Cheonggye Creek and the amenities of the giant city was improved by the cultural and natural wave created along the creek. In addition, the educational opportunity has been provided to the citizens by means of reviving its historical nature.

The design and cultural value of the Cheonggye Plaza were restored for the mean time and the urban environment requested during modern times was established. The Cheonggye Plaza which heightened the balanced development in Seoul which has been developed in an unbalanced way by dividing into northern and southern area of the river is very meaningful in the viewpoint of the landscape architect who designs the urban space. The re-birth as a cultural space of downtown owing to the efforts of the said cultural catalysts is meaningful.

Key Words: CheongGyeCheon, Cultural Catalysts, Leisure Spot, Design, Culture

국문초록

청계천 주변지역은 과거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서울의 주요한 공간이었으며, 시민의 회로애락과 삶이 담긴 장소다.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서울의 중심을 흘러온 청계천은 생활오수에 따른 하천오염과 범람을 이유로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회색도시를 살리고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대규모 도시운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노후화된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

[†]: 상기 작품은 2006년 IFLA ER 디자인 대상과 2009년 ASLA Design Honor Award에 당선된 작품이다.

Corresponding author: Hyun-Don Shin, Seo-Ahn RND Landscape Design Group, Co., Seoul 135-860, Korea, Tel.: +82-2-576-5171, E-mail: shinhyeondon@korea.com

기로 결정하였다.

청계천은 구도심권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문화 공간을 창출했으며, 하천을 따라 형성되는 문화적, 자연적 파동에 의하여 거대도시의 어메니티를 향상시켰다. 또한 역사성을 재생하여 시민들에게 교훈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청계 광장은 디자인과 문화적인 가치를 되찾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의 환경을 만들었다. 강북과 강남지역으로 나뉘어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온 서울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제고한 청계광장은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조경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촉매의 노력으로 도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청계천, 사회적 촉매, 여가공간, 디자인, 문화

I. 서론

청계천은 1394년 서울이 조선 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600여년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경제의 중심권을 담당해온 유서 깊은 지역이다. 서울의 주 배수로 역할을 담당해 오던 청계천은 광복 후 전쟁으로 인해 방임상태로 유지되어오다 1958년부터 본격적인 복개작업이 시작되어 20년에 걸쳐 청계천의 지류가 복개되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0).

이 후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연환경복원과 역사문화 복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청계천 사업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서울의 역사, 문화를 되찾아 시민들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잃어버렸던 청계천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한 프로젝트였다(서울특별시, 2005).

특히 사업구간 내 유일한 광장이며, 청계천 사업의 얼굴이자 첫 물길을 여는 상징적인 장소인 청계천 시점부광장은 시민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맞춘 변화를 담아 열린 시민광장으로 재탄생되어야 했다. 청계광장 설계는 기본 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약 1년여에 걸쳐 국내외 12개 업체의 조정설계, 구조설비전문가로부터 13개의 디자인을 제안 받았고, 완료된 성과물에 대한 약 50여회에 걸친 관계자의 검토와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었다. 또한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재선정과 시공과정을 검토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작품을 탄생시키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이루어진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설계(안)을 상세히 정리하여, 조경가의 고민이 담긴 계획과정들이 새로운 문화를 담아내어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고, 추후 유사 설계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대상지 현황 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의 태평로와 청계천로가 만나는

그림 1. 광화문빌딩에서 본 대상지

점점지역에 위치한 시점부 광장은 동아일보, 현대상선, 감을빌딩, 파인엔셀빌딩 등 20~35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에 둘러싸여 있다. 반경 500m 이내에 서울시청,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경복궁 등이 위치해 있는 서울의 지식·문화·예술·경제의 중심부이다. 본 대상지는 광장부와 하천부로 나누어진다. 광장부는 연장 약 150m, 폭 50m로, 차도와 보도로 사용되는 곳의 폭은 27m, 광장부분은 폭 23m이다. 하천부는 연장 약 150m, 폭 23m로 석재포장과 경화마사토, 녹지로 광장과 연계된 공간으로 이용된다.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여 광장, 수변공간, 도로가 하나의 열린 광장이 되어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그림 1 참조).

주변현황과 연계하여 대상지를 분석하면 계획대상지의 폭은 50m로, 도심 내에서는 넓은 오픈스페이스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변의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있어 심리적으로 협소하고 선형의 느낌을 강하게 받는 곳이다. 또한 태평로와 청계천로가 만나는 결절점에 위치하여 경관적 인지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며, 청계천의 시점으로서 시민에게 장소적 의미가 강한 공간이다(황지영, 2008).

III. 기본 계획

1. 기본방향

광장설계의 주된 주안점은 하천 시점부의 인지성과 청계천의 상징성을 디자인을 통해 광장에 담아내고, 서울의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던 주변상권과 경관을 해치던 요소인 차집 관거, 복개구조물을 다양한 디자인(자연형, 도시형, 전통형, 절충형 등)을 통해 해결하였고, 상부구간에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로이 쉬며 완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상부구간의 친수 및 휴식공간은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로 만들어 광화문광장과 인근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시켜, 가변적이고 다양한 이용행태를 수용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였다.

2. 설계개념 및 구상

청계광장은 도심 내의 휴게·만남, 간단한 모임의 기능을 수

행하는 여타의 광장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청계천이 지니던 역사성을 반영하고, 구도심 상권과 연계된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청계천의 시점부로서의 박진감과 문화 행사를 수용하는 열린 마당으로 구성된다.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전이공간으로서 일탈적 분위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를 차도를 포함한 주변 보행로까지 확장하였으며 박진감과 역동성을 구현하기 위해 절제된 설계언어를 사용하여 광장의 기능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이러한 광장의 담론(Narrative)을 담아내기 위하여 평면성을 강조하고, 다층화된 공간의 입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청계미니언처를 비롯한 청계탐방램프, 벽천, 고수벽체, 이벤트광장, 팔도상징저수호안 등을 계획하였다(그림 2 참조).

3. 공간계획

공간구분은 광장부와 수경부, 저수호안으로 크게 구분되며, 공간을 잇는 2개의 연결로인 램프와 계단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별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1) 광장부

광장부는 이벤트와 문화를 담는 비워둔 이벤트마당과 전통보자기문양의 광장, 환경조형물 마당, 청계미니언처로 구성된 평면성을 강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장부의 주요공간은 마름모꼴과 사선의 진취적인 디자인 판(Surface)을 사용하여 절제감을 부여하고 유동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1) 환경조형물마당

환경조형물을 담는 마당으로서 비워진 잔디마당으로 계획

(2) 청계미니언처

청계천 전구간의 선형을 1/88로 축소한 상징수로로서, 야간조명을 고려한 경관연출을 계획

(3) 전통문양패턴의 광장

전통소재와 한 스타일 패턴을 도입한 광장과 이벤트와 문화를 담는 공간

(4) 이벤트마당

청계천의 문화행사와 시민행사를 수용하는 열린 마당이며, 시민발언대, 콘서트, 나눔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담아낸 공간

(5) 청계탐방램프

광장에서 청계천 저수호안으로 진입하는 무장애공간의 램프이며, 이 관문을 통해 도심에서 하천으로의 일탈성을 부여함

그림 2. 서울청계광장 개념도

그림 3. 서울청계광장 마스터플랜

2) 수경부

수경부는 광장과 청계천을 이어주는 시각적 결절점이자, 전이 공간이다. 한강원수, 뚝섬 정수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모아 1일 65,000톤의 유지용수를 수경연출과 함께 하천으로 보내는 공간으로 광장의 상징적 공간이다.

수경연출은 환경조형물 설치를 고려하여 단순한 형태의 절제된 프로그램으로 연출되는 분수를 도입하되, 수량(水量)을 충분히 사용하여 박진감과 부드러움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벽천부는 청계천의 첫 물길을 여는 의미로 힘차고 역동적인 이미

그림 4. 서울청계광장 시점부

지를 부여하였다. 공간을 잇는 2개의 연결로는 “기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게 하는 주요 보행통로로서, 청계천의 옛 기억을 체험하는 탐방램프와 햇살에 부서지는 맑은 물빛을 경험하는 전망계단으로 구성하였다(그림 4 참조).

(1) 시점부 벽천

청계천의 시작을 알리는 휴먼 스케일의 벽천과 후면의 백운동 하수 구거의 악취가 저감되도록 수막의 깊이와 수량, 수조를 확보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분수를 연출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깨비상인 치우천왕을 전벽돌에 상감하여 한국성을 강조하였다.

(2) 청계탐방램프

거대도시의 껍데기 속에 숨겨진 자연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복개 시절의 청계천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과거 청계천의 호안 유구선이 읽히도록 하였다.

(3) 전망계단

광장부와 청계천 저수호안을 이어주는 연결로로 청계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스탠드 역할을 한다.

3) 저수호안부

시점부에서 광통교구간의 저수호안부는 폭 21m, 길이 200m 정도의 구간으로 광장, 천변산책로의 기능을 하며, 천변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큰 광장과 같은 위요된 공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그림 5 참조).

위요공간의 벽감(Alcove Space)계획을 위하여 저수바닥과 호안, 고수벽면이 하나가 되는 통합디자인을 하였으며, 호안은 팔도의 화합을 상징하는 형태로 전국 8도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팔도의 석재들 사이에는 화합의 물길을 상징하는 작은 물길이 연출되도록 했으며, 이는 팔도강산의 물이 하나되어 청계천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서울청계광장 저수호안부

(1) 팔도상징저수호안

과거의 조선8도와 미래의 통일 한반도를 흐르는 물의 의미를 담기 위하여 각 도를 상징하는 석재조형물로 구성하였다.

(2) 고수벽면

점층적 벽면패턴계획으로 시점부와 기존 1공구 고수호안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장식문양 띠를 조성하였으며, 경화마사 토포장과 갯버들, 수크령 등으로 녹화하였다.

IV. 부분별 계획

1. 가로수 계획

청계천 1공구의 주 수종인 이팝나무를 가로부와 천변 보도부로 연장 계획하여 공구 내 통일성과 강한 이미지를 극대화하였으며, 동아일보사 전면부의 회화나무를 이식, 이팝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였다. 호안 내 천변녹지대는 기존의 식재수종과 달리 4계절 푸르름을 제공하고 꽃과 열매를 즐길 수 있는 눈섬개야광나무를 식재하여 고수벽면의 경관성과 녹시율을 증진시켰다.

2. 포장 계획

청계광장 주변부와의 통합설계를 위하여 차도부분까지 사교석 포장으로 계획하였고, 이는 유동적인 운영프로그램으로 관리되어 휴일이나 행사시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한다. 포장은 7.5m 모듈의 한국의 전통보자기 패턴으로 구성되며, 내구성을 고려하여 세라믹 전돌과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주변의 회도를 감안하여 경관조명을 매입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한국적 포장패턴계획

특히 광장부는 주변 고층건물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평면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통적 소재와 패턴을 도입하였다. 7.5m 모듈로 구분된 패턴 속의 세부포장패턴은 한국의 전통보자기 문양을 컨셉으로 한 포스트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였다.

3. 수공간 계획

1) 청계미니어처

예술사조적으로 광장에 픽처레스크(Picturesque)적인 모티브의 디자인과 청계천 전구간의 선형을 축소한 수로로서, 물이 발원하여 청계천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경관에서 주요한 인지성을 지니는 청계천다리의 위치를 알리는 해설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흥미를 유도한다(그림 7, 표 1 참조).

그림 7. 청계미니어처 디테일

표 1. 청계미니어처 제원

구분	규격	구분	규격
수로 폭	w300~1,000	평균 수심	3.5cm
수로길이	64m	평균 유속	0.22m/s
기울기	1.4%	사용펌프	1.5KW × 50A × 420rpm × 10m

2) 프로그램 분수

상징조형물과 조화로운 단아한 느낌의 프로그램 분수로 계획하여 다양하고 힘찬 느낌의 공간연출계획을 수립한다.

주요사양으로는 AIR SHOOTER NOZZLE 28개와 SHARP NOZZLE 22개, 각 노즐 당 백색조명 1개와 컬러 LED 조명을 1개씩을 설치한다. 평상시에는 최대높이 3m 이내의 분수 연출과 백색조명만을 사용하고, 이벤트 시에는 일반 샤프노즐과 최대 15m까지 올라가는 분수를 동시에 연출하고 LED 조명을 사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다.

3) 벽천

청계천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물줄기를 연출하기 위해 1일 65,000(2700 m³/h)톤을 상부 수조로 유입하여 평균 10cm 이상의 수막이 형성되도록 하였고, 백운동 하수 구거가 노출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막기 위해 이단 형태로 계획하여 하단 수조에 바닥 수막대를 조성하여 풍부한 물량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그림 8 참조)(청계천복원추진본부, 2005).

상부에 공급되는 유량은 분관실에서 밸브조작으로 조절가능하며, 상부에 공급되고 나머지 유량은 하부수조로 우회관으로 직접 토출된다(표 2 참조).

상단 수조 주변으로 경관적인 앉음석을 설치하고 물넘이부에는 수조 장식석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벽천의 풍부한 물량과 수막을 강조할 수 있는 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였다.

4) 팔도상징 저수호안(팔석담)

청계천 시점부의 디자인은 과거의 조선8도와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를 흐르는 물의 의미를 담기 위해 각 도를 상징하는 석재조형물인 저수호안석으로 구성하였고, 보행자들이 물과 직접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였다. 각 지방을

그림 8. 탐방램프, 벽천 입면계획

표 2. 벽천 제원

구분	상단물넘이	하단물넘이
유효 폭	9.06m	12.82m
유효 두께	0.12m	0.1m
평균 유속	0.66m/s	0.58m/s

그림 9. 팔도상징저수호안(팔석담)

나타내는 석재조형물은 크게 각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두 개의 통석과 그 통석들의 사이 갈라진 틈에 설치된 분수로 구성되며, 분수를 통해 뿜어진 각 도의 물이 청계천에 합류함으로써 끊임 없이 흐르는 물의 생명력과 발원의 의미를 담는다. 또한 상부 분수와 하수관거로부터 흐르는 물의 양의 변화는 청계천 호안의 수위를 변화시킴으로써 계절, 일기에 따라 산책로와 석재조형물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석재조형물 형태는 한반도의 해안선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8도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사용해서 지역성을 반영했으며, 방문객에게 유연한 수변을 경험하게 해준다(그림 9 참조).

저수호안분수는 900mm 유지용수에서 300mm 4개로 분관되어 공급되는 라인에서 분관하여 별도의 펌프시설 없이 자연유압으로 연출된다. 팔도 호안석 사이 7개소에 토출용 노즐(개소당 토출 유량 : 65lpm)이 설치되었으며, 평균유속은 0.06m/s이고, 평균수심 0.025m이다.

각 석재조형물들은 하천중앙을 향해 낮아지는 경사를 가지고 있어 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돌마감은 거친 잔다듬 마감을 하였다. 석재의 운반과 설치상의 용이를 위해 각 도 상징조형물들이 여러 개의 통석으로 분리하였지만, 분절된 단위가 아닌 통합적으로 지각될 수 있도록 연결철물로 고정시켰으며, 틈

그림 10. 저수호안 물 공급계획 및 석재계획도

표 3. 팔도상징 석재조형물계획

(단위: m²)

기호	구분	석재명	색상명	비고
A	저수산책로포장석	운천석	담홍색	
B	하상기단석	마천석	흑색	
C	하상바닥석	고홍석	진한 회색	
D	하상바닥의 판석경계	마천석	흑색	
E	함경도	동해석	회색계열	
F	강원도	후동석	암회색	
G	경상도	함양석	암회색	
H	울릉도/독도	몽석	회백색	
I	제주도	제주석	검정	
J	평안도	담양석	어두운 중간 톤의 회색계열	
K	황해도	마천석	어두운 회색계열	
L	경기도	일동석	회백색	
M	충청도	천안석	회백색	
N	전라도	고홍석	암회색	
O	저수호안경계석A	운천석	담홍색	
P	저수호안경계석B	운천석	담홍색	

새로 물이 용출되도록 하였다. 호안과 하상, 그리고 중간층(석재 선정계획도의 A, B, C, D)의 판석은 모르터 조인트로 연결되고, 각 모르터의 색채는 판석의 색채와 같다(그림 10, 표 3 참조).

4. 시설 및 구조물계획

1) 탐방램프

청계광장 설계에서 가장 내러티브한 디자인 요소이자 광장 중심부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주는 연결로로서, “기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한 통로이다. 청계천의 옛 기억을 회상하며 복개시절의 청계천을 경험할 수 있다.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조선시대 호안이었던 유구선과 사선의 진입축을 설정하고, 조금씩 좁아지는 램프의 폭과 낮은 천장면, 경사진 벽과 바닥을 통해 박진감을 극대화하였다.

그림 11. 탐방램프 모델링 및 투시도

벽면은 검은색인 오석 물갈기로 계획하여 광장에서의 일탈감을 줄 수 있는 전이공간 분위기를 연출하고, 바닥 또한 통합된 소재를 사용하였다. 진입우측면에는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좌측벽면은 복개된 청계천의 첫 오픈작업시, 40여년 만에 햇살이 처음 투영된 빛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경관조명을 하였다(그림 11 참조).

2) 전망계단

광장에서 청계천으로 진입하는 계단이자 물의 발원을 전망할 수 있는 전이적인 공간으로서, 사선의 강한 축을 연장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수조부와 벽천부의 풍성한 물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최대한 계단의 폭을 넓게 계획하였다. 계단은 마천석 통석으로 조성하였고, 계단 담면과 계단벽을 통합된 이미지로 디자인하였으며, 핸드레일에는 야간경관과 안전성을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그림 12 참조).

3) 고수벽면

고수벽면에는 패턴의 기본모듈인 장식문양 띠를 7.5m 간격으로 조성하고, 차일고리를 설치하여 한국성을 강조하였다.

탐방램프, 계단의 주소재로 사용된 검은색 화강석과 기존 1공구 고수벽면과의 자연스런 연계를 위해 고수벽면의 마감재는 모전교 방향으로 가면서 모양과 크기, 거칠기와 색을 점층화하였다(모전교 방향으로 갈수록 밝은 모양, 거친다듬, 큰 모듈).

탐방램프와 연계되는 우안의 고수벽면에는 상감기법을 활용한 준천사기록대를 설치하여 청계천의 준천역사를 알리고, 야

그림 12. 벽천 및 전망계단 모델링

그림 13. 고수벽면 우안 입면계획

간의 경관을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였다(그림 13 참조).

5. 경관조명계획

광장은 청계천의 상징적 영역으로 “빛이 흐르는 천(川)”의 시작이다. 광장 디자인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야간경관 연출조명으로 “발전하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청계광장을 찾는 방문객들과 주변 건물의 이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불쾌한 눈부심(Glare)이 없는 ‘쾌적한 빛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청계천의 역사적 상징성을 반영한 시점부로 청계수로를 상징화한 ‘청계미니어처 수로’와 광장의 ‘전통 보자기 패턴’, ‘8도를 상징하는 저수호안 패턴’ 등을 효과적으로 연출되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청계미니어처 수로와 분수 연출 조명, 벽천과 저수호안 등 광장을 구성하는 수공간과 빛의 조화로 다양한 야경을 연출하였다.

1) 수목조명

건물보도의 좌우측 가로수를 지중매입 등으로 상향 조사하여 도로조명과 구분지어지는 ‘빛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이는 시·지각적으로 광장 공간을 확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며, 보도까지 광장 공간의 범위를 확대 인식시켜 주며, 건물에서 비춰지는 주변의 산만한 빛을 정돈시켜 주어 광장 안쪽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2) 광장 패턴등

모듈 간격으로 가볍게 포인트 조명하여 광장 바닥을 하나의 면으로 보이도록 운영면에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단일조명으로, 시간대별로는 컬러를 변화시켜 다양한 변화 연출이 가능하다(그림 14 참조).

3) 청계미니어처

청계 수로의 라인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단면에서와 같이 광섬유 끝 발광포인트를 측면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들이

그림 14. 광장패턴등 디테일

그림 15. 청계미니어처 조명

경계의 빛과 어우러져 잔잔하게 표현되도록 하였고, 광섬유 포인트 기구를 측면 매입함으로써 주변 휘도에 따른 경관연출 계획을 고려하였다(그림 15 참조).

4) 스텝등/이벤트광장 조명등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주는 경계부분에 안전 측면에서 빛이 한쪽 방향으로 조사되는 보차도 경계용 스텝등을 설치한다.

이벤트 광장에는 조각전시나 기타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이와 연계시켜 다양한 컬러연출이 가능한 면조명으로 설치하였고, 시간대별로 다양한 컬러패턴으로 연출이 가능하다(그림 16 참조).

5) 고수벽면 경관조명

고수벽면 상부 이팝나무는 지중매입등으로 상향조사하며, 아래와 같이 입면 장식띠의 하부에 지중매입등을 설치하여 상향 조사(照射)하며, 전통 차일고리 안쪽에 기구를 매입하여 코브 조명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패턴을 강조한다(그림 17 참조).

6) 탐방램프

탐방로 우안은 핸드레일 상부에 기구를 매입 설치하여 안전성을 고려하였고, 좌안의 복개 당시의 청계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라인패턴 또한 기구를 매입 설치하여 빛의 라인을 강조하여 상징성을 강화하였다(그림 18 참조).

7) 저수호안(팔석담)

대한민국 8도의 형태미를 그대로 강조하는 계획으로 조명기

그림 16. 스텝등 / 이벤트광장 조명등

그림 17. 고수벽면 조명계획

그림 18. 청계광장 시점부 전경

구를 석재조형물 안쪽에 설치하여 기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간접 조명이 수면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휘도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연출하였다.

8) 분수 및 벽면

분수 연출조명은 평상시에는 Warm White color, 주말에는 다양한 색상 연출로 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벽면 연출조명은 홍수시 기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양측면에 설치하며 분수의 컬러 연출 조명과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일 색상의 White Color로 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9 참조).

또한 귀면석 토수구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2단 수조 하부에 수증등을 설치하여 물과 귀면석 토수구를 상향 조사(照射)하였다.

9) 조명연출 프로그램

앞 항에서 설명한 각 조명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시간대별로 컬러를 다양하게 연출하여 도심속의 야경을 창출한다(표 4 참조).

그림 19. 이단수조 벽면 상향조명 디테일

표 4. 시간대별 빛의 컬러 연출 프로그래밍

구분	일몰 후 -PM 8:00	PM8:00 -PM10:00	PM10:00 -자정	자정 이후 -일출까지
바닥 포인트등	Blue Color		White Color	
청계 미니어처	White Color		Blue Color	
이벤트광장 면조명	Full Color Change [Red-Green- Blue-White- Yellow...]	Green Color [단색 컬러]	Yellow Color [단색 컬러]	OFF
벽면 조명	White Color			OFF
8도 저수호안	White Color			
분수 연출조명	[평상시] Warm White Color [주말] Full Color Change			

청계광장의 조명프로그램은 인접 건물군 · 가로등 · 차량불빛의 휘도(輝度)를 고려하여 광원의 종류와 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하였다. 이는 도심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며 가독성(Legibility)과 인지성(Visibility)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계절별로 도입되는 퍼포먼스조명은 광장의 활력과 박진감을 부여하여 많은 집객(Attraction)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광장의 가능성을 연출하기도 한다(그림 20 참조).

V. 결론

우리가 지내온 20세기는 앞만 보고 치달린 시대였다. '근대화'는 시대의 과제였고, '개발'은 그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개발은 전통경관과 전통문화에 적대적이었다. 수백년간 우리 곁에 있던 많은 것들이 '개발'의 이름으로 사라져 갔다(서울특별시,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광장은 물적 성상의 개발뿐만 아니

그림 20. 서울청계광장 전경

라, 공공장소가 지니는 장소성과 사회적 가치가 문화와 결합하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데 그 의미가 있다. 복원이전의 청계천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물건의 구매가 주를 이루었으나, 복

원 이후엔 산책, 휴식, 관광, 하천보기, 약속 등으로 목적이 변하였다(이경동, 2007). 방문인구 또한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결합이 되어 죽어가던 구도심의 상권을 다시 활성화 시켰다.

계획단계에서 디자인과 문화를 융합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던 열린 공간인 광장은 시민발언대, 사회공헌 행사인 나눔 캠페인, 콘서트 등의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팔석담에 기부를 위한 동전던지기 행사는 창조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게 된다.

공공의 장소를 다루는데 있어 조정가의 의도는 설계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고는 한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설계, 시공과 감리까지 많은 부분들에 참여했으며, 비록 디자인이 구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기존의 획일화된 광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와 장소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서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작동하는 광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인용문헌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0) 서울의 하천. pp. 197.
2. 서울특별시(2002)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서울특별시. pp. 153.
3. 서울특별시(2005) 알기쉬운 시민백서 청계천. pp. 22-23.
4. 이경동(2007) 청계천 복원에 따른 장소성의 변화와 인근 가로환경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4.
5. 청계천복원추진본부(2005) 청계천복원사업. pp. 94.
6. 황지영(2008) 서울시 청계천 이용자 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2.

원 고 접 수 일: 2012년 4월 13일
 심사 일: 2012년 5월 17일(1차)
 2012년 5월 26일(2차)
 게재 확정 일: 2012년 5월 26일
 3인익명 심사필